

➤ 6~12학년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위한 유용한 조언:

자녀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친구를 사귀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의 사회생활 중 많은 부분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스터디 그룹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짬"을 타거나, 게임 내에서 보이스 채팅을 할 때에도,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량이 있으면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넷 가지 유용한 조언을 소개합니다. 2



그들에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적절한 구두 및 신체적 소통을 배웁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따금,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에 댓글을 달 때 아이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 내용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세계에 대해 배웁니다.

십대 초반과 중반의 자녀는 자신만의 소통 스타일이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를, 되도록 많이, 살펴보고 자녀의 세계에서 통하는 규범을 파악해 보십시오. 물론 자녀의 모든 말을 감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막말, 혐오 발언, 무례한 이미지, 또는 그 외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을 넘는 언행이 있다면,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말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공감합니다.

십대 초반과 중반의 자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섹시한 사진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삼아서, 친구의 말을 거스르기 싫어서, 또는 그저 "다들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친구를 실망시키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사적인 사진이 학교 전체에 좌악 퍼지는 것은 그보다 얼마나 더 속상할 기분이 될지 상상해 보도록 도와 주십시오.



➤ 6~12학년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위한 유용한 조언:

자녀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친구를 사귀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본능적인 느낌을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소름끼치거나, 위험하거나, 다른 의미에서 안전하지 못한 온라인 상황을 "감"으로 느끼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해 봅니다.

누군가가 은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해 온다면?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사적인 채팅방에 초대한다면? 아이들 중에는 (설령 "착한" 아이라도) 호기심을 못 이기고 온라인에서 나쁜 짓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만두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